


시온 주보

제2325호 2021년 1월 31일(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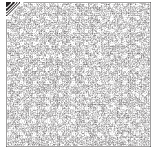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106(105),47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다.

제1독서 | 신명 18,15-20

화답송 | 시편 95(94),1-2.6-7.11-12.7.7-9(◎ 7과 8과)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끌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1코린 7,32-35

복음환호송 | 마태 4,16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음 | 마르 1,21-28

영성체송 |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창원 다니엘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장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사제로 있는 동안 말라리아에 4번 걸려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라리아에 4번이나 걸릴 수 있냐고 혀를 차시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흔하게 걸리는 질병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빠른 검사가 중요합니다. 양성으로 나올 때는 3일 정도 약을 먹으면 다시 괜찮아지지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약을 먹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매년 약 3억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하고 있으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목숨을 잃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많은 국가들이 백신 개발에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감사하게도 현재 여러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고 사람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말라리아로 고통받아온 지구 반대편의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우리도 힘든데 누가 해외원조를 위해 기부할까?’ 생각했었는데 끊임없이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모금액이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진행 중인 ‘가나의 카나수아 지역 아이들 340명에게 교실을 지어주고 영양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는 역대 가장 많은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이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더러운 영에 들린 이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마르 1,24)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 도처에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은총도 희망도 생명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예수님도 당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마르 1,24)**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일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바람 그리고 별자리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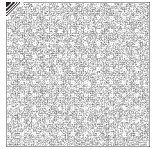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일상에 충실한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제가 일하는 식당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시장 안에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생업을 위한 가게들이 무척 많습니다. 야채 가게, 정육점, 철물점, 커피전문점, 식당과 술집 그리고 크고 작은 마트까지. 그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대리점, 은행, 여러 분야의 병원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원들도 참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시장 안의 상인들 중에는 성당에 다니시는 교우들도 꽤 많습니다. 시장의 양 끝에 성당이 자리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곳에 성당이 두 군데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가게를 하시는 교우들은 그 두 성당의 신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더 중요한 점은 상당히 오랫동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새삼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렇듯 주 5일에 40시간만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60시간 정도는 기본이며, 심지어 거의 80시간 가까이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하시면서도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계셨습니다. 평일 미사에 참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보였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당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제게는 체력적인 문제였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고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저는 피곤에 절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영업은 육체적 피로만이 아니라 가게를 경영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잖이 받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나쁘면 나빠서, 경기가 어려울 땐 더 크게 영향을 받죠. 영리를 목적으로 '청년밥상 문간'을 운영하는 게 아닌 저도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자연스레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실까... 정

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익히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들을 직접 겪고, 보게 되니 뻗속까지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뿐이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부들은 강론할 때 미사에 참례하신 신자들을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 미사에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식구들을 돌보는 것, 한시도 잊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를 떠올리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나가는 모습은 아름답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신부가 웬 식당이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교리를 가르치고 미사를 집전하는 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겠지요.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식당 사장인 저와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나를 이끄는
성경교절

기쁨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

손태복 브루노
마산교구 장승포성당

코로나19보다 심각한 기후 위기

산업화 시대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급속히 증가했고, 지구를 데우는 온실효과로 인해 지난 백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벌써 1도 이상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뭄과 홍수, 산불과 태풍 등 재해의 파괴력이 더 커지고, 매년 지구상의 기후는 점점 더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의 상황은 안정된 기후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 인류 문명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하게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평소보다 몇 도 더 오르면 몸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되듯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세상의 가장 낮은 이들,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기후 위기의 상황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며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금의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30년 정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후 위기를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혼란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하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청합니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기후위기 7가지 극복을 위한 실천

1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을 알립시다

정부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법안과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압박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제하고 격려하는 정책과 법안을 세우고 실행하라는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관해 자주 대화하며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차 없이 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걷는 것입니다.

3 비행기 여행을 자제합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 여행을 줄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없어지더라도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4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합시다

평소에 채식 중심의 식사를 자주 하고, 금육재를 확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5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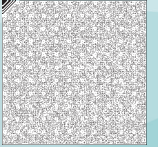
건물의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덥고 추울 때 옷을 적절히 바꿔 입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합시다

성당과 가정, 직장이 위치한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7 모든 소비를 줄입니다

전기에너지를 덜 쓰고, 물건을 가급적 덜 사며, 한번 구매한 물건은 재사용, 재활용하고, 덜 버리는 것입니다.



2021년 서울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서품식 참석 안내

▶ 서품식 일시 및 장소

- **부제 서품식:**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 **사제 서품식:**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 서품식 참석 관련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성당 좌석 10% 인원제한 지침에 따라 수품자, 부모님, 본당 신부님만 참석 가능합니다. 이번 서품식은 명동대 성당 전체 구역을 통제하오니, **신자들은 참석 불가합니다.**
(수품자 가족, 본당 신자, 사제단 참석 불가)

사제·부제 서품식은 가톨릭평화방송과 유튜브 'cpbcTV가톨릭콘텐츠의 모든 것'을 통해 생중계되므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제·부제 수품자를 위한 기도

-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원하는 이들을 부르고 파견하시어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날로 풍성하도록 이끄시나이다.
- 이제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생을 오롯이 바치며 살아갈 봉사자로 뽑으신
새 사제(부제) ()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나이다.
-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의 삶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하나 되신 주님을 본받아

-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에 헌신하여
가난한 이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 주님, 청하오니 새 사제(부제)들과 함께 하시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 이 땅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 순교 성인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제 수품자 (서울대교구 20명)



신현범 베드로
신도림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주지환 요한바오로
대치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박형준 라파엘
창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김강룡 프란치스코
상계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이영중 미카엘
명동성당
2월 7일(일) 낮 12시



김남혁 대견안드레아
신대방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김지수 루치오
개포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김성진 시몬
신월1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박용준 사도요한
등촌3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김우진 토마스아퀴나스
역삼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고울 리카르도
대방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정택진 베드로
둔촌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최진묵 리카르도
가락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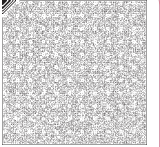
김기주 치프리아노
둔촌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마호성 아브라함
송천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오승언 안드레아
서초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오준혁 엘리야
가락2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1시



조상현 베드로
천주교서울교구(제기동성당)
2월 7일(일) 오전 10시30분



파비아노 레베자니
파비아노
레템포리스마페르 신학원
2월 7일(일) 오후 8시



심현보 루카
레템포리스마페르 신학원
2월 6일(토) 오후 6시

부제 수품자 (서울대교구 22명)

이름	세례명	본당	이름	세례명	본당
주영준	다니엘	길음동	박유민	세례자요한	사당5동
이현철	베드로	목동	이정훈	사도요한	송파동
장용석	요셉	수유1동	김병규	대건안드레아	양천
이한별	도미니코	제기동	이경수	프란치스코	목3동
이경록	스테파노	구로1동	고태경	마태오	서교동
임현호	도미니코	불광동	이준혁	바오로	양천
박상호	요한마리아비안네	청량리	박준영	제피리노	오금동
최지영	유스티노	구로1동	온승현	바오로	잠원동
박배원	베드로	중계양업	이승규	토마스아퀴나스	목5동
백춘조	베드로	중국 하얼빈교구 (압사동)	Thang Za Sing	프란치스코	미얀마 칼라이교구 (석촌동)
서진우	바오로	중국 하얼빈교구 (압사동)	Lal Vum Thawng	요셉	미얀마 칼라이교구 (석촌동)

cpbc 가톨릭평화방송 서품식 TV 방송 시간 안내

부제 서품식 - 생방송 2월 4일(목) 14시 • 재방송 2월 4일(목) 23시

사제 서품식 - 생방송 2월 5일(금) 14시 • 재방송 2월 5일(금) 23시, 2월 6일(토) 14시30분

인류는 한 가족, 우리 공동의 집

우리 공동의 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은 '사랑'입니다

|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노출된 가난한 이들 |

기후 변화로 인한 불평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벼랑 끝까지 밀려난 가장 취약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인류를 위협할 때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은 어떤 방패막이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맞닥뜨리고 있으며,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약 1억이 넘는 인구가 새로운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세계은행, 2020년 6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이상 기후로 가뭄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19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고, 슈퍼 태풍이 강타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열악해진 주거 상태와 위생 환경으로 코로나19와 수인성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고, 국가 간 분쟁으로 국경 봉쇄와 난민들이 늘어난 중동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 수단을 잃고 오로지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현상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이미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 인류는 한 가족, 우리 공동의 집 |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인류는 진정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생겨난 새로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으며, 서로 돕고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제애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으라고 권고하십니다(프란치스코, 2020년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참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지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심과 돌봄을 한 가족인 인류에게로, 우리 공동의 집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사랑은 교회 전체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회칙 「사회적 관심」, 42항 참조).

한국 교회 신자들은 해마다 해외 원조 주일에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성은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전 세계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카리타스인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방법만이 이 공동의 집을 보호하고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신자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정성과 사랑은 가장 무방비 상태로 고통받는 이웃을 치유하고, 지구 반대편의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일으키며, 인류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만들어갔습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터전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에서 겪고 있는 지금의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위기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과 연대의 대유행을 만들어갑시다." (국제 카리타스 의장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2020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참조)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새로운 빈곤에 맞설 사랑의 희망, 바로 그것은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2코린 5,14) 사랑은 우리 공동의 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그 사랑의 연대에 동참하여 세상의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오늘(1월 31일)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93년부터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제적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2월3일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52세)
- 2018년 2월4일 김용화 바오로 신부(62세)
- 2019년 2월5일 최영식 마티아 신부(72세)

2월 2일(화)은 ‘봉헌 생활의 날’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교구정월맞이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혜진 개인전: 1전시실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신입회원전: 2전시실

인천가톨릭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스테인드글라스전: 3전시실

전시일정: 2월3일(수)~8일(월)

성경통독 라이브 강의

강의: 조창수 신부 / 문의: 010-7586-5425 사목국
월요 성경통독은 매주 월요일 오후 1~3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 / 네이버 밴드의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라이브 실시간 or 녹화 시청 가능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및 해밀가족 모임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2월1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2) ‘해밀’ 가족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함께 합니다 / 문의: 02)921-5093

2021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가톨릭인성교육 I-Brand반 모집

청소년국 산하 학교사목부에서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I-Brand반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I-Brand반 운영을 원하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제: 인성교육(나를 개방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 이루기)

수업 영역: 지구시민, 생명문화, 공예, 문화, 심성계발, 나눔실천 / 2월17일(수)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02)553-7320~2 학교사목부(일·월 휴무)

홈페이지: www.kyos.or.kr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2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자랑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2월1일~28일 / 문의: 010-5482-3217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때, 곳: 제86차 2월5일(금)~13일(토),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 / 061)373-3001, 010-3540-9001(http://hsosb.or.kr)

수도전통 렉시오 디비나(상지피정 집)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

때: 3월2일~4월20일(화) 8회 / 문의: 010-9401-9374

아씨시 수녀들과 함께하는 청년랜선모임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2월7일(일) 14시~17시(온라인) / 문의(접수): 010-5313-0241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2월6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 1층 경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씨튼 예비부부 주말 피정(씨예주 2박3일)

문의: 02)744-9825(www.setonscc.com) 씨튼 영성센터

22차	3월19일~21일	예비부부 및 신혼 2년 미만 주말(금) 19시~(일) 16시 혼인교리로 인정
23차	6월18일~20일	
24차	9월3일~5일	
25차	12월10일~12일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2월19일(금)~27일(토)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제주교구 성자순례 3박4일(글라셋선교수도회)

때: 매일 출발 / 회비: 32만원

내용: 성지 6곳 순례 및 미사·성사(글라셋선교수도회 신부 동반) / 문의: 010-5150-2625

교육

목주·목세공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ICPE선교회 제자훈련 / 문의: 010-7548-6664

대상: 대학생, 청년 / 대면 혹은 비대면

때, 곳: 2월27일(토)~2022년 1월, ICPE선교회(합정동)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

(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2021년 노틀담교리교재연구소 교리학교 15주 과정

문의: 010-2123-6319(http://cafe.daum.net/ndfirst)

대면	3월15일부터 매주(월) 10시~12시, 노틀담교육관
비대면	3월17일부터 매주(수) 19시~21시, Zoom

가르멜영성문화센터(가르멜수도회)

랜선으로 만나는 가르멜 강의 / carmelcenter.kr

유튜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검색 후 구독

자세한 사항 문의: 02)6951-1101, 010-4149-1853

2021-22 영성코스	16과목 / 9명의 강사진
성시간	매월 마지막주(토) 13시30분~16시30분
청년 피정	매월 둘째주(토) 14시~16시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서울대학교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과정당 15주
곳: 서울대학교 명동성당(영성센터)
문의: 010-2226-5874, 010-7411-7163

사순 온라인 '40일 회복 수련'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터회)
때: 2월16일부터 매주(화) 총 7회
낮간의 14시·밤간의 22시 중 선택
문의(접수): 010-8911-5957 천주교사도직연합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무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수업시간: 19시~22시(주 5일 수업 예정)
교무실: 마포구 백범로 35 곧자카플라자 / 문의: 010-9278-9230 박서영 선생, 010-2004-7395 이수현 선생

가톨릭ON(생활서서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 개강: 2월15일 / www.catholicon.co.kr
클래스 오픈 기념 얼리버드 할인혜택 기간: 1월15일~2월14일 / 100%페이백 말씀 챌린지
문의: 02)945-3300, 010-3092-1108 가톨릭ON

바이블가이드(성경입문가이드)	김효준 신부
성경 본문 zoom(Zoom in) 구세사 편 1	김혜운 수녀
늘푸른성경영어 구약 1(입문+창세기)	김영선 수녀
늘푸른성경영어 신약(예수그리스도입문)	박기석 신부
지혜여정(이사야서·다니엘서·요나서)	박형순 신부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월16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지원교사모집: 검정고시 교과멘토링, 탁구 동아리 지도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과정: 17세~21세(고등 과정) 2년 6학기제
입학: 1월·5월·9월 입학 가능 / 통학(기숙 가능)
교육: 영상제작(극·다큐), 시나리오, 미술·공예, 진로·진학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미래교육원(양천구 신월3동)
문의: 02)833-0930(dybsbosco@daum.net)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불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앙상블(남·여) 그레고리오 성가·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 기타 등
접수: 2월1일(월)~27일(토) / http://www.casm.site
때, 곳: 3개월 수업(3월~5월),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 문의: 02)393-2213~5

모집

검정고시 학생 및 자원봉사자·강사 모집

대상: 학교밖청소년 14세~24세
내용: 21년도 검정고시 희망 청소년 / 자원봉사자·국·수·과, 한자사, 시간강사·영상제작 및 편집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2021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의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02)793-2070 콘벤투알, 010-7261-8233 카푸친, 010-4171-0898 청년회(만35세 미만)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2월3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첫 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사도적)

때, 곳: 2월6일(토) 9시30분~12시(9시30분 쉼기도·10시45분 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2)756-347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2월5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내

가톨릭불명상(서울포교베네딕도고척상담센터)

문의(접수): 010-6388-2665 최 막달레나 수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문의: 041)950-1008

천주교 대전교구 운영 /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동' 운영

수사신부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 몬피노노요양원

깨어있는 대화 / 문의: 02)841-0524

대상: 자기자신과 연결, 상대방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 강사: 엄영주 수녀(상담심리사 1급)
때, 곳: 2월19일(금) 10시~12시30분(8주간),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주최) 상담실(전철 7호선 신평역 4번 출구)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전문 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유판단체 일람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 교육·미술심리상담사
자격과정: 2월15일~3월15일 (월) 10시~16시(5회, 6명)

직원모집

돈암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 문의: 02)925-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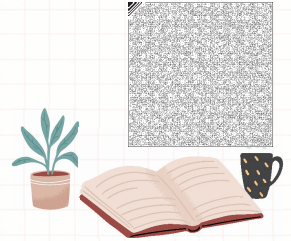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소방·가스·보일러 자격자 우대 /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2월14일(일)까지 방문·우편(우 02849,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7길 120), 이메일(donam@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가소비녀회	성소 피정(상시)	총원(전철 4호선 길음역)	02)940-5933 고나연 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월7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센터(도봉구)	02)980-0385, 010-6462-0385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개별 면담)	온·오프라인	010-4241-1210 성소 담당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1월31일(일)	분원(삼전교)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우리 사이는 잠시 멀어져도 하느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 ◆ ◆ 2021년의 신앙 다짐! 교리 달력 & 기도 노트 ◆ ◆ ◆



하루를 시작하는 한 줄 가톨릭

365일 곁에 두고 보는
YOUCAT 교리 달력 출간!

| YOUCAT 재단 지음 | 16,000원

가톨릭 대표 교리서로 자리 잡은 <YOUCAT> 시리즈에서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하루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도록 만든 365일 만년 교리달력입니다. 교리 강의나 공부 모임이 힘들어진 시기,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교리 달력을 놓는다면 신앙을 놓치지 않고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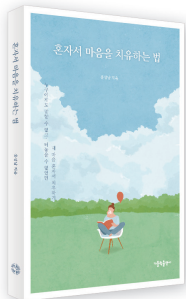


40일 성경 기도 노트

간절한 소망이 하느님께 닿는
40일간의 기도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2,000원

40일간 성경과 <준주성범>을 읽고 쓰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 노트입니다. 40일 동안 간절히 청하고 응답받은 성경 속 인물들처럼 이 노트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간 도서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의 저자,
홍성남 신부의 최신작

| 홍성남 지음 | 12,000원

상처받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어루만져 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영성심리 상담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온 홍성남 신부가 '스스로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배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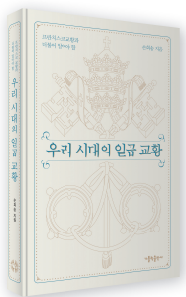
신간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준비하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교황청 내사원 지음 | 10,000원

하느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사인 '고해성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동안 고해성사가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담긴 이 작은 책과 함께 하느님과의 은총 가득한 만남을 용기 있게 준비해 보세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개정)

지금의 가톨릭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일곱 명의 교황

| 손희송 지음 | 16,000원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현에는 사실 전임 교황들의 노력이 선행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현대의 격동기 속에서 교황님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켰을까요? 손희송 주교의 안내를 따라 오늘날의 교회를 일군 일곱 교황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나 보세요.



연옥 실화(개정)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곳,
'연옥'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 막심 휘상 지음 | 15,000원

천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인 '연옥'. 이 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연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정화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는 연옥 영혼들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 ❖ 기부 진시 ❖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누계 : 1,891,504,758원

본당 사무실에서는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에 봉헌될 기부금을 '기부 진시'라는 이름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봉헌하신 기부금은 사무실을 통해 일괄 서울대 교구로 전달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미사시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임시 조정 (12월 8일부터 적용)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토요일		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과년도(2017년~2020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2016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미사 참례 지침 안내

(※1월 31일 현재)

단 계	미사 참례 지침
1단계	1~2미터 간격을 두고 띄어 앉기
1.5단계	좌석 수의 3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400명)
2단계	좌석 수의 2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250명)
2.5단계	좌석 수의 1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120명)
3단계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주례자+스태프)만 입장

※상기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본당 미사 참례 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발행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시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2.5단계 이상 상황에서는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 대성전

◎ 2021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입

어려운 시국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어 2021년도 교무금 책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본당 신년 달력과 가정기도문 책자를 드립니다.

◎ 명동대성당 전례봉사분과 단체별 단원 모집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전례에 봉사할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통 지원 자격 : 세례 받은 지 만 3년이 넘은,
서울대교구 내에 거주하는 자

·모집 단체

① 새벽미사 봉사단

: 매일 아침 7시 미사 해설·독서 봉사

② 성지미사 봉사단

: 평일(월~토) 오전 10시 미사 해설·독서 봉사
(☞ 만 45세 이하)

③ 주일미사 독서단

: 주일에 거행되는 미사에서 독서 봉사
(☞ 50세 이하)

④ 평일미사 독서단

: 평일(월~금) 저녁 6시, 7시 미사 독서 봉사
(☞ 50세 이하의 남성 신자)

⑤ 해설단 : 평일 저녁미사 및 주일미사 해설 봉사
(☞ 37세 이하, 평일 저녁 6시 봉사 가능한 남성 신자)

·모집 기한 : 2월 7일(주일)까지

·지원 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하고
교적증명서 1부 첨부하여 사무실에 제출

·지원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축 사제 서품 》

이영중(미카엘)

- 사제 서품식 : 2월 5일(금) 오후 2시
- 서품식 장소 : 주교좌 명동대성당
- 새 사제 첫 미사 : 2월 7일(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하느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제로 서품되는 이영중(미카엘) 부제의 앞날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이번 서품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 성당 전체 구역을 통제합니다. 서품식은 가톨릭평화방송과 유튜브(채널명: cpbcTV가톨릭콘텐츠의 모든 것)를 통해 생중계하오니 교우분들께서는 방송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품식 준비 관계로 2월 1일(월)~2월 5일(금)까지 대성전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 2월 5일(금)은 오후 6시, 7시 미사가 없습니다!

《 초 축성 및 봉헌 》

2월 2일(화)은 「주님 봉헌 축일」로 당일 오전 7시 미사 때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초를 축성 받으실 분들은 제대에 마련된 장소에 초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동안 미사에 사용될 제대초를 봉헌 받습니다. 제대초를 봉헌해주실 개인이나 단체는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

2월 12일(금) 「설」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에 미사 예물 접수 하실 분들은 2월 10일(수)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 하시거나 설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설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사무실 휴무

2월 11일(목)~14일(주일)까지 상설 고해성사는 없고, 본당 사무실은 2월 11일(목)~12일(금) 휴무입니다.

※ 본당 사무실은 13일(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

※ 평일미사는 기존과 같이 봉헌됩니다.

《 수녀님 인사이동 》

금번 인사이동으로 청년 담당 박 체칠리아 수녀님, 제의실 윤 요셉피나 수녀님께서 이임하시고, 새로 서 엘리사벳 씨튼 수녀님, 이 릿다 수녀님께서 부임 하십니다. 재임하신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동하시는 수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

2월 17일(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속죄와 보속의 사순 시기가 시작되며, 당일 모든 미사 중에는 이마에 재를 얹는 예식이 거행되오니 작년 코로나19로 제출하지 못한 성지(聖枝)를 갖고 계신 분들은 2월 14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2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예비신자 환영식은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2월 14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 (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이길재(베드로) 신부
주일반	오전 10:00	오 세실리아 수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 교리반 접수 장소 : 교육관 303호

※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연중 제 4 주일이자 해외 원조 주일로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18-1/24).....20,522,130
· 연중 제 3 주일 헌금.....8,423,390
· 감사헌금 (1/18-1/24).....2,117,000
고 니콜라오 / 김 세실리아 / 김 소피아
김 헬레나 / 도 카타리나 / 서 루치아
서 세실리아 / 이 도나다 / 이 미카엘라
이 켈마 / 임 사무엘 / 전 스틸라
하 바틸다 / 익명(1)